

## 경제관계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6.26)

□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### [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 ]

□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.

○ 수출은 상반기에 반도체·자동차 등의 호조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실적 회복이 예상됩니다.

- 1/4분기 성장률도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금년 우리 경제 성장전망을 2% 중반대로 상당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

○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지만, 최근 들어 2%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.

○ 이렇게 거시경제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감에 따라 외국인 주식 순유입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

□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,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.

○ 누적된 고물가·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특히,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,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□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 
「역동경제 로드맵」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.

- 오늘은 역동경제 세번째 대책인  
「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」을 마련했습니다.

#### [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]

□ 지난 5월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 
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을 밝혔습니다.

- 오늘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마련한  
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합니다.

□ 첫째,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합니다.

-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.5%p\*까지 낮은 금리로  
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\* (대기업) △0.8~△1.0%p, (중소·중견기업) △1.2~△1.5%p

- 또한,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.1조원(現 0.3조원)으로 확대하고  
소부장·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다음달부터 개시합니다.

□ 둘째,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공제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합니다.

□ 셋째,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 
R&D와 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.

□ 끝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 
도로·용수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,  
소요 비용 또한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어제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
- 정부도 이러한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.  
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 
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.
- 아울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 
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합니다.  
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.

#### [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유동성 활성화 방안 ]

- 이어서, 출연연구기관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 
연구와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.
-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처우 특례를 마련하고,  
연구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연구기관 간 칸막이도 낮추겠습니다.

#### [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 ]

- 끝으로,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 방안입니다.
- 청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이 특색 있는 공간에서  
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 
예식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.
- 이번에 48개 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총 139개의 예식공간을 제공하고  
7월부터 공유누리\*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\* 공유누리(eshare.go.kr) :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시설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

-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 
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계속, 그리고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
-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하여 과기부 차관의 자세한 말씀이  
있겠습니다. (과기부 차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